

유적지 순례 110

始祖 太師公과 羅末의 政勢

시조 태사공과 라말의 정세

궁예와 태봉국(후고구려)

901년 궁예(弓裔)에 의해 건국되어 918년 왕건(王建)에게 멸망할 때까지 18년간 존속한 나라이다. 신라·후백제와 더불어 후삼국을 정립(鼎立)했으며, 후고구려 또는 마진(摩震)이라고도 하였다.

신라는 진성여왕 때에 이르러 국력이 급속히 쇠약해지고 재정이 결핍하게 되자 백성에게 조세를 독촉했는데, 그것은 백성들의 유리현상을 더욱 촉진했고, 결국 전국 각지에서 반란이 일어나게 되었다. 이 때 궁예가 고구려의 부흥을 내세우고 후고구려(後高句麗)를 세웠으며 뒤에 국호를 태봉으로 바꾸었다.

태봉을 세운 궁예는 정권다툼에 밀려났던 신라의 왕족으로 추정된다. 그는 세달사(世達寺)의 중이 되었으나 세상이 소란스러워지자 웅지(雄志)를 품고 891년에 죽주(竹州：지금의 경기도 안성(竹山))의 반란군 두목 기훤(箕萱)에게 투신하였다.

그러나 기훤이 거만해 함부로 대하므로 기훤의 부하들과 함께 북원(北原：지금의 강원도 原州)의 반란군 두목 양길(梁吉)에게 투항하였다.

양길은 그를 우대해 군사를 주고 북원 동쪽의 땅을 공략하게 하였다. 이에 궁예는 군사 1백여 기를 거느리고 여러 군현(郡縣)을 점령했으며, 894년 명주(溟州：지금의 강원도 江陵)에 들어갔을 때의 세력은 이미 군사 3,500명이 되었다.

그뒤 강릉으로부터 북상해 10여 개의 군현을 점령하고, 철원(鐵原)에 도읍을 정하였다. 895년에는 내외의 관직을 설치, 국가의 체제를 갖추기 시작하였다.



△철원 궁예의 도읍지

896년에는 송악군(松嶽郡：지금의 開城)의 대호족인 왕건 부자가 귀순하였다. 898년에는 수도를 철원에서 송악으로 옮겼으며, 이듬해 양길과 싸워 이겨 결국 지금의 강원·경기·황해·충청북도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큰 세력이 되었다. 이에 901년 고구려의 부흥과 신라의 타도를 표방하며 국호를 후고구려라 하고 스스로 왕이라 칭하였다.

그가 후고구려라 칭하게 된 사회적인 배경은 당시 경기·강원 이북지방에서는 고구려 부흥의 기운이 팽배했고, 이들 지방의 백성들은 고구려유민들로서 신라정부의 차별대우와 실정(失政)에 대해 반감을 품고 있었다.

이로 인해 국가의 기초가 확립되고 점차 국력이 강화되자, 904년(효공왕 8)에는 국호를 마진으로 고치고, 연호를 무태(武泰)로 정했으며, 정부의 관제도 아울러 정비하였다.

당당한 국가의 면모를 갖춘 뒤에 905년에는 도읍을 다시 철원으로 옮기고, 911년에는 국호를 다시 태봉이라 하고, 연호를 수덕만세(水德萬歲)로 고쳤으며, 3년 뒤인 914년에는 연호를 다시 정개(政開)로 하였다.

태봉은 904년에 중앙관제를 정했는데 최고관부로서 광평성(廣評省)을 설치하고 거기에 광치나(匡治奈：고려 때에 시중)·서사(徐事：侍郎)·외서(外書：員外郎)의 벼슬을 두었다.



△철원 궁예의 도읍지

이러한 관직체계는 뒷날 고려 태조의 제도 정비 때 큰 영향을 미쳤다. 문화로는 불교 문화가 융성해 유물로서 석등루(石燈籠)이 남아 있고, 팔관회(八關會)를 개최한 사실도 있다.

태봉과 후백제는 대외적인 관계에서 양국은 모두 중국과 외교관계를 수립하면서 일종의 외교전의 양상을 띠었다.

견훤(甄萱)이 남중국·일본 등지와 교류를 한 반면, 궁예는 주로 산둥반도(山東半島)를 거쳐 북중국과 교류하면서 후백제에 대항하였다. 이들의 대중국외교는 매우 적극적이었는데, 이는 중국이 정통왕실로서 신라를 인정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한편, 국내문제에 있어서 궁예와 견훤은 처음에는 군사적인 충돌은 하지 않았으나 점차 국가의 세력이 확장됨에 따라 신라를 놓고 충돌하게 되었다.

궁예는 먼저 왕건에게 해상권을 장악하게 하고, 이어서 후백제가 일본과 교통하는 것을 저지하기 위해서 지금의 전라남도 해안지방을 점령하게 하였다. 그리하여 왕건이 전라남도 서남해안의 10여 군현을 점령하는 데 성공하였다.

이것은 안으로 후백제의 공격을 견제하고, 한편으로는 후백제의 중국·일본 등에 대한 활발한 외교활동을 억제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것은 909년에 견훤이 오월국(吳越國)으로 보내는 사신의 배를 왕건이 잡아오자 궁예가 크게 기뻐해 왕건에게 후하게 포상한 것을 보아도 알 수가 있다.

궁예는 신라의 왕족이면서도 망명해 지방에서 숨어 살았다. 그리고 피난 중에 한쪽 눈

이 멀고, 그 생활은 유모에 의해 이루어졌다. 따라서 그의 성격이 반사회적이고 파괴적인 경향을 띠었다. 중이 되어서도 승려로서의 근검한 생활과 교리의 연구 같은 데에는 관심이 없었고, 계율을 무시하면서 빼뺏어진 생활을 하였다. 그리하여 고구려의 부흥을 명목으로 나라를 세운 뒤 정교(政敎)일치적인 전제주의와 영웅주의에 빠져 자신을 과시하는 데 급급하였다. 906년 철원으로 옮기고 궁궐과 전각을 수리하는 데 사치하였다.

이러한 영웅주의는 자신을 미륵불(彌勒佛)이라 칭하고, 큰 아들을 청광보살(靑光菩薩), 작은 아들을 신광보살(神光菩薩)이라고 했으며, 머리에는 금척(金幘)을 쓰고 몸에는 방포(方袍)를 입었다.

외출할 때에는 백마를 타고 채단으로써 그 갈기와 꼬리를 장식했으며, 동남(童男)·동녀(童女)로 하여금 번개(幡蓋)와 향화(香花)를 받들어 앞장서게 하고 승려 2백명으로 하여금 법패(梵契)를 부르며 뒤따르게 하였다.

한편, 말년에 이르러 의심증이 심하게 나타나 부인과 두 아들을 죽이고, 문무관료에서 평민에 이르기까지 반역죄를 씌워 무고하게 죽였다. 또 사치와 낭비로 말미암아 세금과 부역이 과중하게 부과됨으로써 백성이 도탄에 빠지게 되었다. 결국, 궁예는 신하들의 추대를 받은 왕건에 의해 축출되고, 아울러 태봉도 멸망하게 되었다.

궁예는 몸을 일으킨 지 28년, 왕을 칭한 지 18년만에 몰락했으며, 왕건에 의한 고려왕조가 개창되게 되었다. 이리하여 후삼국은 후백제·신라·고려로 재편되었으며, 결국은 고려의 왕건에 의해 민족이 재통일되기에 이르렀다.

왕건과 궁예

왕건은 877년에 한주 송악군에서 사찬(沙飡) 용(隆)의 아들로 태어났다. 그의 아버지가 서해 용왕의 딸과 혼인하여 왕건을 낳았기 때문에, 대대로 왕씨 일족의 거드랑이에는 용의 비늘이 들어났다는 전설이 있다. [고려사]에도 실려 있는 또 다른 전설에 따르면 용이 송악의 남쪽에 집을 짓자 당대 도참(圖讖)의 제일이자였던 도선(道詵)이 지나가다가 “이곳에서 성인이 나시리라”라고 외치고는, 용에게 “내년에 반드시 귀한 아들을 낳을 것이다”라고 귀띔했다. 도선은 왕건이 17세 되던 해에 다시 찾아와 “너는 장차 왕이 될 운명이다”라고 알리고, 병법과 각종 술법 등을 가르쳤다고 한다.

왕건이 태어났을 때의 신라는 이른바 ‘하대(下代)’에 접어들어 있었다. 통일기의 융성했던 활력과 리더십이 사라진 가운데 중앙은 진골 귀족들끼리 ‘족당(族黨)’을 맺어 왕위를 놓고 아귀다툼을 벌였으며, 지방은 호족들이 중앙에 바칠 세금을 빼돌리고 자체 무장을 하면서 중앙으로부터 독립해나가는 추세가 갈수록 심해져갔다. 이런 추세를 더욱 급하게 만든 결정적인 사건은 841년, 장보고(張保皋, ?-846)의 죽음이였다. 해로를 장악해서 세력을 쌓은 여러 호족을 하나로 통합해 해상제국을 세웠던 장보고가 사망하고 나자, 그의 아래에 있던 호족들이 저마다 독자 행동에 나서면서 지방의 이탈이 더욱 심해졌던 것이다.

그 중 하나가 바로 왕건의 가문이었다. 무역을 통해 막대한 부를 쌓은 왕건의 가문은 송악 일대를 장악했을 뿐 아니라, 예성강 일대에서 강화도까지 이르는 지역에 튼튼한 세력 기반을 구축했다. 이런 강력한 해군력과 재력을 갖춘 왕건 가문과 임진강 일대를 중심으로 새롭게 세력을 떨치던 궁예(弓裔, ?-918)가 896년에 손을 잡음으로써, 후고구려(고려)는 후삼국 중 가장 강력한 기반을 가지고 출발할 수 있었다. 궁예는 용을 금성 태수로 삼고 송악에 도읍한 다음, 잣 스물이던 왕건에게는 송악산 기슭의 발어참성 성주의 직위를 주었다.

왕건은 궁예의 장군이 되어 많은 공로를 세웠으며, 특히 가문이 키워온 수군을 이끌고 한강 유역과 서해안, 멀리 지금의 경상남도까지 공략하여 기세를 떨쳤다. [고려사]에는 성인이 된 그의 용모를 가리켜 “눈이 부리부리하고, 이마는 넓고 푹 튀어나왔으며, 턱이 살쾜다. 목소리가 우렁쳤다.”라고 표현했는데 다른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매력과 지도력이 있었던 듯하다.

913년(?)에는 덕진포에서 견훤(甄萱, 867-936)의 수군과 일대 대결을 펼쳤는데, 왕건은 화공을 써서 후백제 수군을 격파하고, 견훤이 간신히 목숨만 구해 도망치게 했다고 한다. 계속해서 반남현을 공격해 물싸움에 능숙하다고 ‘수달’이라는 별명이 붙은 견훤의 애장, 능창을 사로잡는 전공을 세웠다. 이렇게 궁예는 왕건의 활약에 힘입어 견훤과의 대결에서 우위를 점했다.

여름 6월에 궁예(弓裔) 휘하의 사람들이 마음이 홀연히 변해 왕건을 추대하였다.

궁예는 본래 고구려를 계승한다는 뜻에서 지은 국명을 904년에 마진(摩震)으로, 911년에는 태봉(泰封)으로 고쳤으며 수도도 송악에서 철원으로 옮겼다. 이는 나라가 넓어지고 왕건 등의 영향력이 커지는 상황에서 궁예가 권력을 확실하게 장악하려고 추진한 변화였다. 수도를 옮겨 왕건의 본거지에서 빠져나왔을 뿐 아니라, 자신을 말세에 나타나 개벽을 이룩한다는 미륵의 화신이라 일컫고, 국호도 불교적 의미가 짙은 이름으로 바꾼 것이다.

궁예는 고구려를 계승한다는 명분을 접고 스스로를 신라 왕실의 후예라 하면서, 금성(경주)을 “멸도(滅都)”라고 부르며 자신이야말로 타락한 신라를 무너뜨리고 새로운 세상을 창시할 구세주라고 일컬었다. 그리고 힘이 커진 호족과 장수들을 반역죄로 처형했다. 왕건도 여기에 밀려들어 하미터면 죽을 뻔하였으나, “내 관심법(關心法)으로 보니 네가 반역을 꾀했다”라는 궁예의 힐문에 오히려 “그렇습니다. 제가 감히 역모를 꾸몄습니다. 죽여주십시오.” 하자 궁예가 정직해서 용서한다며 벌은커녕 상을 내렸다고 한다.

가까스로 모면했지만 언제 궁예의 손에 숙청될 지 모르는 일, 게다가 고려를 세운 절반의 지분이 있다고 여기는 상황에서 궁예가 독재의 길을 치달으니, 그에게 남은 선택은 하나밖에 없었다. 왕건은 홍유·배현경·신승겸·북지겸·박술희 등과 모의하여 918년 6월에 궁예를 내쫓고 스스로 고려의 주인이 되었다. 기록에 따르면 당시 왕건은 쿠데타에 반대하며 궁예에게 충성하려 했으나, 홍유 등이 간곡하게 부추기고, 부인 유씨가 “의로운 군사를 일으켜 포악한 임금을 없애는 일은 예부터의 일이다”라며 손수 갑옷을 가져와 남편에게 입혀 마지못해 거사했다고 적혀 있다. 왕건은 거사에 앞서 수도에 “왕건이 왕이 된다”라는 참언까지 퍼뜨리며 적극적으로 쿠데타를 준비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궁예가 쫓겨나 죽은 다음 이혼야·환신길·진선 등의 반란이 꼬리를 물었고, 옛 백제 지역으로 고려에 복속해오던 공주 이복의 30여 성이 한꺼번에 후백제에 투항한 점을 보면 “궁예가 포악해서 널리 민심을 잃었고, 왕건이 대신 왕이 되자 온 나라가 한 마음으로 환호했다”는 기록은 현실과 거리가 있었을 것이다. 아무튼 이로써 42세의 나이에 왕위에 오른 왕건은 한동안 흐트러진 기강과 민심을 바로잡고, 당시 발해가 쇠퇴하며 거란이 새로운 강국으로 성장하는 북방의 위협에 대비하느라 통일전쟁에서는 한 발 물러서 있게 되었다. 그 사이에 견훤의 후백제가 기세를 올렸다.

왕건의 고려국 개국

한편 이날 밤 새벽에 관자를 나신 홍술 등은 마당에서 곡식 더미를 쌓은 위에 왕건을 앉히고 그 아래 차례로 엎드려 임금과 신하의 예를 행하고 궁성으로 들어가 왕건을 즉위시키니 서기 918년 국호를 고려(高麗)라 하고 연호를 천수(天授)라 하였다.

그리고 다시 하루 뒤인 정사일(丁巳日)에 조서(詔書)를 내리기를 ‘태봉주(泰封主:궁예)는 사군(四群)이 붕괴할 때에 도적을 제거하고 영역을 개척하였으나 삼한을 겸병(兼併)하기도 전에 혹독하고 포악함으로써 백성을 억압하고 간사한 것으로 지극한 도



△왕건이 개경 도읍지

화합하게 할 것이니 내외의 모든 사람은 짐의 뜻을 알지아라” 하였다.

임금이 된 왕건은 네 공신에게 성과 이름을 내리는 사성명(賜姓名)을 하여 홍술(弘述)은 홍유(洪儒)로 하고 백옥(白玉:白玉珍)은 배현경(裴玄慶)으로, 삼능산(三能山)은 신승겸(申崇謙)으로, 북사귀(卜沙貴)는 북지겸(卜智謙)으로 하였다. 책을 많이 읽은 태평(泰評)이란 이가 궁예에게 미움을 받아 기졸(騎卒)에 속했는데 이를 순군낭중(尙軍郎中)으로 삼고, 개국에 공이 있으나 자기가 권력을 잡지 못한 데 불만하여 모반한 마군장군(馬軍將軍) 환신길(桓宣吉)과 그 아우 향식(香翹) 등을 주살하고 관직을 정비하였다. 김행도(金行濤)를 광평 시중(廣評 侍中)으로 하고 검감(鑾監)을 내봉령(內奉令)으로, 임명필(林明弼)을 순군부령(尙軍部令)으로, 임희(林曦)를 병부령(兵部令)으로, 진원(陳原)을 장부령(倉部令)으로, 염장(閼長)을 의형대령(義刑臺令)으로 삼으며 그밖의 모든 관서에 백관을 재배치하였다. 궁예 밑에서 아첨하고 참소하던 자들을 목베거나 쫓아내니 산속에 숨었던 은사(隱士) 박유(朴儒)가 나와 왕건을 섬겼다. 박유는 경사(經史)에 밝아 궁예를 섬겨 동궁기실(東宮記室:세자의 스승)에 이르렀는데 궁예의 난정을 보고 사자라다가 나왔으므로 왕건이 예대하여 ‘부암(傅巖:殷의 명재상 부열(傅說)이 있던 곳)과 위빈(渭濱:周的 명재상 강태공이 낚시하던 위수 물가)의 선비를 얻었다’ 하면서 군국(軍國)의 기무(機務)를 맡기고 왕(王)씨로 성을 내려 주었다. 또 관제(官制)를 정하는 조서(詔書)를 내려 ‘태봉주(泰封主)가 신라의 관품(官品)과 군읍(郡邑)의 이름을 모두 비루하고 저속하다고 하여 고쳐 시행한지 오래인데도 백성이 익히 알지 못하여 미혹(迷惑)하고 어지러우니 이제 모두 신라의 제도를 따르되 명의를 알기 쉬운 것만 새 제도를 따르도록 하라’ 하였다.

공신 수훈과 많은 성 복속

그리고 7월에 조서를 내려 ‘신하로서 개국을 도와 기이한 계락을 운용하고 세상을 덮는 공을 세운 사람에게는 모토(茅土:제후를 봉할 때 따풀에 싸 주는 흙)를 나누어 주고 높은 관작으로 포상함이 백대의 뚜렷한 법이요 천고의 규모이다. 짐이 미천한 데서 출신하여 재주와 식견이 용렬하나 못사람의 신망에 힘입어 왕위에 올랐으니 그 포악한 임금을 폐하던 때에 충절을 다한 자에게 마땅히 포상을 시행하여 훈공을 권장해야겠다. 홍유·배현경·신승겸·북지겸을 제1등으로 삼고 견권(堅權)·능식(能諱)·권신(權愼)·염상(廉相)·김락(金樂)·연주(連珠)·마난(麻蘭)으로 제2등을 삼아 각기 금은 그릇과 비단 요이불과 능라(綾羅:명주)·포백(布帛:베)을 차등있게 주고 제3등인 2천여 명에게도 또한 능라·포백과 곡식을 차등있게 주라’ 하였다.

왕건이 즉위한 이후 안팎에서 반발의 모반도 잇따랐으나 손쉽게 정리되고 나주도 구진(具鎭)을 나주도대행대시중(羅州道大行臺侍中)을 삼아 보내 치켰으며 상주(尙州)의 장수 아자개(阿字蓋)는 사자를 보내 항복해 오니 왕건은 구정(竊庭:축구장)에서 의식의 예향연습을 해가며 성대히 이를 맞이하였다. 황폐한 평양성을 수축하여 황주(黃州)·봉주(鳳州:봉산)·해주(海州)·백주(白州:배천)·염주(鹽州:연안) 등 여러 고을 백성을 나누어 이주케 하고 대도호부(大都護府)로 만들어 당제(堂弟:사촌 동생) 왕식렴(王式廉)을 보내 지키게 했다. 즉위한 이듬해 경명왕 3년, 919년 정월에는 송악의 남쪽으로 도읍을 옮겨 그 군(郡)을 개주(開州)로 승격하고 시가를 설치해 방리(坊里)를 구별해 5부와 6위(衛)를 두었으며 3월에는 도성 안에 법왕사(法王寺)와 왕륜사(王輪寺) 등 10여 개의 큰 사찰을 지었다. 3대를 추존(追尊)하여 왕건의 증조부를 원덕대왕(元德大王)에 모호(廟號)를 국조(國祖)라 하고 증조모는 정화왕후(貞和王后)라 하여 해동에서 최초로 조종(祖宗)의 묘호를 썼으며 조부모는 경강대왕(景康大王) 의조(懿祖)와 원창왕후(元昌王后), 부모는 위무대왕(威武大王) 세조(世祖)와 위숙왕후(威肅王后)라 하였다. 즉위 3년인 920년이 되자 정월에 신라에서 사신을 보내 예물을 드리고 강주(康州:진주)의 장군 윤웅(閔雄)이 아들 일강(一康)을 보내 볼모가 되게 하면서 귀의하므로 낭중(郞中) 춘양(春讓)을 보내 위유(慰諭)했다. 북쪽의 골암진(鵝巖鎭)이 말갈족(靺鞨族)에게 침략을 당하므로 유검필에게 군사 3천을 주어 진수케 하였다.

이해 9월에는 견훤이 아찬(阿飡) 고팡달(功逢)을 보내 왕건이 즉위한 해에 이어 두 번째로 통호하마 공작선(孔雀扇)과 죽전(竹筴)을 바쳤으나 바로 다음 달에 견훤이 신라를 침공해 대량(大良:함진)과 구사(仇史:초계)를 공격하고 진례군(進禮郡:청도)에 이르니 경명왕이 아찬 김율(金律)을 보내 구원을 청했다. 이에 왕건이 군사를 보내 구원하자 견훤이 퇴각하였는데 이로부터 후백제와는 틈이 생겼다. 921년 2월에는 흑수말갈(黑水靺鞨)의 추장 고자라(高子羅)가 170여명 무리를 끌고 와 귀의하고 달고적(達姑狄)은 170 무리를 끌고 신라를 침범하고자 하는데 등주(登州:안변)를 지날 때 견권(堅權)을 시켜 처서 섬멸하니 이를 듣고 경명왕이 사신을 보내 사례하여 고려와 신라는 더욱 사이가 좋아졌다.



△개성 왕건릉